

보성군 '소통600 서비스' 군민소통 핫라인 '자리매김'

지난해 7월 22일부터 시행...하루 평균 2건 이상 접수 지역개발 18% 1위...생활복지·도로교통·녹지환경 어린이 수영 강습 운영·마을회관 보수 등 실질적 개선

보성군의 '소통600, 문자한통(이하 소통600)' 서비스가 1일 평균 2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는 대표적인 군민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소통600' 민원 중 '지역개발' 분야가 전체의 18%로 가장 많았다.

이같은 결과는 보성군이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난해 7월 22일부터 본격 운영한 '소통600'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번 분석에서 1년간 접수된 민원은 총 776건(1일 평균 2.13건)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지역개발' 민원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복지(130건)·도로교통(129건)·녹지환경(124건) 순이었다. 이밖에 군민 제안(77건), 주택건축(52건), 군민 칭찬(31건), 하천

정비(20건), 기타(73건) 분야로 접수됐다.

'소통600'은 군민이 민원 접수 전화번호(010-5438-0600)로 문자만 보내면 군수에게 직접 전달되는 행정서비스 제도이며, 접수 내용을 직접 확인한 군수가 관련 부서에 지시해 48시간 이내 답변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이 제도는 군민들이 군정 제안·생활불편 신고·칭찬 메시지 등 다양한 의견과 민원을 적극 제시함으로써 군수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특히 기존 민원 시스템의 불편 사항이었던 '담당 부서 찾기'나 '진행 상황 확인을 위한 반복 문의' 등의 번거로움을 해소함으로써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군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신속한 답변 뿐만 아니라

현장 출동과 조치를 원칙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간 '소통600'을 통해 어린이 수영 강습 운영, 어린이집 지원 확대, 마을회관 보수, 도로 및 안전 시설 정비 등의 실질적 개선이 이뤄졌다. 다만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 계획을 상세히 안내해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소통600' 만족도 조사에서는 ▲민원 편리성 4.35점, ▲담당자 친절 4.31점, ▲답변 처리 속도 4.30점, ▲군정 신뢰도 향상 기여 4.06점 등 평균 4.16점(5점 기준)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 응답자의 88.5%가 '소통600, 문자한통' 서비스의 지속 운영을 희망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의 민원이 군정에 소중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600을 더욱 고도화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 군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보성군의 '소통600 문자한통' 제도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군수와의 소통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민들과 대화 모습.

농작업 1~2시간마다 반드시 15분 이상 휴식 하세요

고흥군 폭염 안전 대처 당부 한낮 야외작업 피하는게 좋아

고흥군이 야외에서 오랜시간 작업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특히 농작업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본 수칙을 안내했다.

먼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가급적 야외작업을 피하고, 작업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피하게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작업 위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

또 1~2시간마다 반드시 작업을 멈추고, 그늘진 곳이나 냉방이 가능한 장소에서 15분 이상 휴식을 취해 체온을 조절해야 한다. 농작업 시에는 모자, 팔토시,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 등 폭염 대비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탈수 예방도 핵심이다. 갈증이 없어도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생수나 이온 음료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반면, 카페인이나 설탕 음료나 술은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섭취를 피해야 한다.

공영민 군수는 "폭염은 단순한 무더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을 먼저 챙기는 것이 풍년 농사를 위한 첫걸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흥군은 각 마을 방송과 문자 안내를 통해 폭염 시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특히 고령 농업인 가구를 중심으로 건강 상태 확인과 안전 조치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최수종과 함께하는 전남연기캠프

광양시·전남영상위원회 공동 연기·연극 등 5개반 50명 선발

광양시와 (사)전남영상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14회 최수종(사진)과 함께하는 전남연기캠프'가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서울대 남부학술림 추산시험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기캠프는 영상문화 접근이 어려운 지역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예술적 잠재력을 발굴해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연기캠프는 연기·영상 제작·연극·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 있는 전남지역 중·고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인소식은 28일 열린다.

참가자 모집은 이달 14일까지이며, 서류와 영상 심사를 통해 최종 50명을 선발한다. 선발 명단은 오는 17일 (사)전남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연기반, 제작반 A·B, 연극반, 뮤지컬반 총 5개 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받는다. 연



기반은 기획부터 시나리오 작성, 단편영화 촬영과 발표까지 전 과정을 체험하며, 제작반은 카메라 촬영, 편집, 사운드 등 실제 영화 제작 전반을 배운다. 연극반과 뮤지컬반은 공연 준비와 예술 전반에

대한 기초 교육과 실습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캠프는 전공 강사진과 멘토의 밀착 지도 아래 실습 중심으로 운영되며, 생활지도 강사, 영상팀, 운영진 등 약 50명이 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배우 최수종이 캠프 운영위원장으로 참여해 청소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진로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내달 1일에는 참가자들이 제작한 작품을 발표하는 행사가 열리고, 2일 수료식을 끝으로 캠프가 마무리된다.

김명덕 광양시 문화예술과장은 "예술에 대한 꿈을 품은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군, 신규농업인 버섯 재배기술 교육 30여명 참여 이론·실습

구례군이 최근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버섯 반 교육을 마무리했다.

지난달까지 총 6회 실시된 이번 교육은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을 대상으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됐다. 총 30여명이 참여해 기능성 버섯 재배, 병해충 방제, 스마트팜 활용, 마케팅 전략 등 실습과 이론을 병행하는 맞춤형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마친 한 교육생은 "이론뿐 아니라 직접 배지를 만들고, 재배해 보는 실습이 매우 도움이 됐다"며 "교육을 통해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버섯반 교육은 신규농업인의 농업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 현장의 어



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구례군은 귀농인의 안정 정착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규농업인 교육은 농촌진흥법에 근거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됐으며, 교육생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올해 하반기에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경제일자리과, 4개팀으로 여수시 경제회복 선제대응 이달부터 경제팀 조직 정비

여수시가 국민주권정부의 민생 중심 국정 기조에 발맞춰 민생경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팀단위의 조직 정비를 단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16일 입법예고했으며, 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경제일자리과 내 팀 기능을 ▲민생회복을 위한 '민생경제팀'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팀' ▲중소기업, 사회경제기업 등을 전담하는 '기업지원팀'으로 재편한다.

또 문화예술과 문화브랜드TF팀을 '문화재단지원TF팀'으로, 수산경영과 수산업진흥센터팀을 '수산물안전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와 여수국가산단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지원과 내 '화학소재산업팀'을 신설한 바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민생경제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재편한다"며 "중앙정부의 재정·제도적 지원 연계를 통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경제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군, 동강전통시장서 물가안정 캠페인

휴가철 앞두고 바가지 요금 근절

고흥군이 지난 1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동강전통시장을 방문해 고물가 대응을 위한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공영민 고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동강전통시장 상인회, 유관기관 등 35명이 참가한 가운데 최근 급등한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군은 캠페인을 통해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 표시제 준수 ▲부당 상가래 행위 근절 등을 당부하

고, 상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영민 군수는 "우리군은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을 3년째 동결해 오고 있다. 물가안정은 모두의 동참을 통해 가능하며, 착한소비와 공정거래가 일상화되는 따뜻한 경제 공동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2025년 하계 휴가철을 맞아 물가안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피서지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광양시, 전남도 다산안전대상 '최우수기관'

재해 예방·안전 문화 확산 등 호평

광양시가 전남도 주관 '제7회 다산안전대상' 시·군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시상금으로 상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 <사진>

'다산안전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재난 예방과 대응, 복구에 대한 애민 사상을 되새기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개인, 단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 분야의 모범 사례를 발굴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전라남도는 ▲재난관리 평가 ▲안전한국훈련 평가 ▲재해예방사업 ▲안전문화운동 등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종합해 시·군 부문

수상기관을 선정했으며, 광양시는 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남도 1위에 올랐다.

광양시는 재난 사고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 태세를 확보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제로화'를 실현했다. 또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안전문화 확산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천하며, 사람 중심의 안전도시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과 함께 만든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안전한 광양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곡성군, 한우농가 번식·개량 종합컨설팅

곡성군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과 함께 지난달 30일 곡성을 호산나농장에서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번식·개량 분야 전문가 종합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에 시행된 종합 컨설팅은 전국 축산농가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축산원들로 팀을 구성해 진행됐다. 올해로 15년째를 맞은 이 프로그램은 매년 참여 농가들로부터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한우농가의 사양 관리와 개량 등 실질적인 문제를 직접 진단하고, 개선 방향에 대한 맞춤형 조언이 제공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원의 맞춤형 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지역 축산농가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경영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